

# 광주·전남 1인 가구 '역대 최고' 3가구 중 1가구 '나 혼자 산다'

### 지난해 각각 22.1만·28.3만 가구...전남 '60대 이상' 절반 넘어

혼자 사는 가구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3 가구 중 1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은 1인 가구의 절 반 이상이 60대 이상 노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는 각각 22.1만, 28.3만 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인 가구 수는 광주 21.2만, 전남 27.4만으로 각각 4.3%, 3.3%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전체 62.3만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5.5%를 기록, 전년(34.5%)보다 1%포인트 증가했으며, 전남은 1인 가구가 전체(78.5만)의 36.1%를 차지했다. 역시나 전년 35.3%보다 0.8%포인트 늘었다.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20대 이하(21.4%)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17.4%), 70대(16.6%), 50대(15.5%), 60대(15.3%), 40대(14.1%) 순으로 많았다.

전남은 독거 노인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1인 가구 전체의 32.6%가 70대 이상이었으며, 60대 이상도 19.1%나 됐다. 광역시인 광주와는 달리 20대 이하는 10.7%, 30대도 10.2%에 불과했다.

1인 가구의 사·도간 이동을 살펴보면 광주는 유입(1만3700가구)보다 유출(1만8457가구)

이 많은 순유출(-4757가구) 도시로 분류됐다. 전남 또한 유입 1만7241가구, 유출 2만364가구로 3123가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 전국 가구(2177만4000가구)의 34.5%인 750만2000가구가 1인 가구였다. 역시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로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의 19.2%가 20대 이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70세 이상(18.6%), 30~39세(17.3%)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6762만원)의 44.5%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 중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61.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2.0%였으며, 전체 가구를 놓고 보면 소득 1억 원 이상 가구는 20.0%였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000원, 이 가운데 월평균 보건 지출이 12만9000원이었다.

올해 1인 가구의 자산은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2억949만원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5억2727만원)의 39.7% 수준이다.

부채는 1.9% 늘어난 3651만원이었으며, 금융부채가 2847만원(78.0%)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23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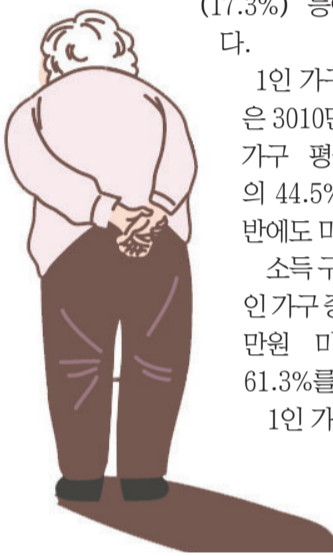
전체 수급 가구 가운데 72.6%가 1인 가구로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8만3000원 이하다.

올해 1인 가구의 55.7%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30.9%였다. 전체 가구에서 소유 비율(56.2%)보다 25.3%포인트 낮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LH 부실시공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 정부, LH 혁신안·건설카르텔 허파만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또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계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허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 공공주택 공급 민간과 '경쟁체계'로 재편... '민간 단독'도 가능

### 취업심사 LH 퇴직자 절반으로 확대... 전관업체 입찰 원천 차단

이를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의 '공공주택 특점 공급자' 지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 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롯데백 '12월 홀리데이 프로모션'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2층 '판도라' 매장에서 다양한 귀금속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판도라는 오는 25일 까지 '12월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주얼리 상품을 최대 25% 할인 판매하며, 30만원 이상 구매 시 13만 8000원 상당의 팔찌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 '스토펙시'와 '에서', '루첸리', '골든두' 등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 광주은행 'App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대상 '와(Wa)뱅크' 등 6명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2023 광주은행 개인뱅킹 App 아이콘 디자인 및 네이밍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 변화를 위해 광주은행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광주은행 앱(APP)의 새로운 디자인과 네이밍을 위해 '변화', '혁신', '신뢰'를 키워드로 공모를 진행, 총 300여건의 작품이 제출됐다.

제출된 작품들은 서류·외부고객·임직원 평가 등을 거쳐 대상(1명)·최우수상(1명)·우수상(2명)·장려상(2명) 등 총 6명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문승미 고객의 '와(Wa)뱅크'가 선정됐다. 와(Wa)는 감탄사이자, 사전적 의미로 '여럿이 한꺼번에 몰려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2가지 뜻을 담았다. '와(Wa)뱅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픽뱅크', 우수상은 '워드뱅크'와 '월뱅크', 장려상에는 '데일리뱅크', '굿뱅크'가 선정됐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새롭게 리뉴얼된 '광주 와뱅크'로 광주은행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조태권 광주요 회장, 이사회 의장 취임



조태권(사진) 광주요그룹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했다. 광주요그룹은 12일 올해도 브랜드 광주요 60주년과 프리미엄 증류주 화요 20주년을 맞아 세계 시장 확장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조태권 광주요그룹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해 100년 기업을 향한 전략 수립과 한국 식문화의 세계화와 고급화를 위한 혁신에 전념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딸인 조희경 부사장은 광주요 대표이사 및 글로벌 사업담당 임원으로 승진했다. 광주요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조직 인력 및 전략 전체를 총괄하는 신내전 부사장을 영입했다. 또 영업본부에는 마케팅 전문인력 손희경 전무를 선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 휘발유 25%·경유 37%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유류 세금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1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km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

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유류 세금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졌다. 앞서 유류세 연장을 결정했던 지난 10월 9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에도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는 상황이 많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좀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 내년 2월부터 '코로나 직접 피해 확인'→'코로나 기간 사업 영위한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는 등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올해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원칙적으로 코로나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서 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부실(우려) 차주면 누구나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5.27(+9.91)
↑ 코스닥	839.53(+4.28)
↓ 금리(국고채 3년)	3.446(-0.034)
↓ 환율(USD)	1314.00(-2.50)